

대학 기록(Varsity Letters)*

(이은경 옮김.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7)

이 미 영**

가끔 책이나 논문의 제목에 속는 경우가 있다. 전공분야의 책이든 소설책이든 제목만 보고서 한껏 내용을 기대했다가 낭패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제목과 내용의 상이함, 멋진 제목만큼 충실하지 못한 내용은 책을 읽는 내내 아쉬움을 갖게 한다. 사실 제목만 보고 스스로가 선택의 폭을 좁히고 미루어 짐작한 잘못이 크지만 그런 생각은 한 참 뒤에 나기 마련이다.

서두가 길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학 기록」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학 기록을 연구하거나 대학 기록관에 근무하거나 하는 사람만 볼 책이 아니라 ‘기록’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어볼 만하다. 「대

* 원전 : Helen Willa Samuels, *Varsity Letters: Documenting Moder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2.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 기록」이라는 제목 때문에 ‘대학’이라는 특정 기관의 기록만 얘기한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책은 어떤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 기관 기록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본서와 같으며 기본서인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매력이 있다.

저자인 헬렌 사무엘스(Helen W. Samuels)는 1977년부터 MIT 도서관에서 기관 아키비스트(institute archivist)이자 특수 컬렉션을 담당하는 장(head)으로 일했고 이전에는 아키비스트이자 사서였다. 그만큼 매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저술은 과학, 기술의 도큐멘테이션,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같은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녀의 연구들은 현대 사회의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은 현대의 대학을 도큐멘테이션하는 것을 돕는 ‘대학 기록(iversity letters)’에 관한 특별한 조언과 적절한 도큐멘테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다. 기능분석에 바탕을 둔 이 방법은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기록의 보존을 분석하고 계획하는데 어떤 유형의 기관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 책을 기록학 분야의 대표 저서로 손꼽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한 책이 발간된 지 15년이 지나서야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우리에게 왔다. 일부 용어¹⁾들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번역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지만, 역자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저자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

1) 역자인 이은경은 ‘documentation strategy’나 ‘documentation plan’을 기록 전략, 기록 계획으로 번역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도큐멘테이션 계획’으로 표기하였으며, ‘documentation’은 도큐멘테이션 또는 기록화란 용어로 대신하였다.

이나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고자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기에, 그 부분이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을 펼쳐보면 우리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 ‘기록 관리’ 단계 이전에 ‘기록’이라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설명하기 녹록치 않은 두 글자에 집중하여 매우 쉽게 쓰여졌지만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기록 ‘관리’의 이슈와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은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 대학 기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처음부터 “기능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기능 연구가 개별적인 수집 기록물의 선별부터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협동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까지 모든 수준의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무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을 나누고, 각 기능별 활동과 그 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록들을 확인, 정리하였다.

이 책의 전제는 오늘날의 수집 업무에 앞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키비스트의 선별 업무는 기록물이 생산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기능적인 접근은 기록할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수집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주장대로 쓰여졌다.

기능 분석은 해당 기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하는 활동과 그 활동 주체에 대한 감각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기관을 구성하는 활동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기능 분석은 기록물이 생산된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관의 성격과 그 기관이 수행하는 넓은 활동 범위를 이해

하기 위해 그 기관의 수준에 기능 분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반복되는 저자의 주장이다. 주장의 근거는 평가 결정이란 잠재적인 연구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록될 기관이나 현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키비스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하게 기관을 기록하는 것인데, 기능 분석은 그런 기록을 선별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긴 하나, ‘기능 분석’과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과신(過信)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최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하기보다 어떤 것이 기록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방대한 정보영역에서 최상의 기록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시평가이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이용자, 아카이브 공동의 접근에 기반하여 특정한 지역, 활동, 주제를 설정하고 협동적 선별 및 수집을 통한 당대의 대표적 지표로서의 기록을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헬렌 사무엘스는 1984년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의 연차회의에서 해크만(Larry Hackman)과 함께 이 전략을 소개하였고, 1986년 “Who controls the past”를 통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대 기록 환경의 특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기관적 협력방식 등에서 야기되는 엄청난 투자비용의 부담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자체를 실제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분야를 도큐멘테이션 할 것인가, 무슨 근거로 누가 할 것인가,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등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Who controls the past” 발표 후 6년 뒤 헬렌 사무엘스가 “대학 기록”을 통해, 주제접근이라기 보

다 존재하는 실체로서 대학의 구조 기능에 중심을 둔 전략을 소개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이 책에서도 앞의 비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 책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활동의 전체적인 범위를 연구하기 위해 7가지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증서 수여(confer credentials), 지식 전수(convey knowledge), 사회화 촉진(foster socialization), 연구 수행(conduct research), 기관 존속(sustain the institution), 사회봉사(provide public service), 문화 진흥(promote culture)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학 수준의 모든 활동에 어느 정도 관련된 일련의 기능을 확인하고 그 기능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록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각 기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세부적인 기관 도큐멘테이션 계획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키비스트는 해당 기관의 역사에서부터 목표와 기능 전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기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끊임없이 내려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능적인 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룹, 대학 기능을 7개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기능을 세분하고 각 부분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정리한 그룹,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의 도큐멘테이션 계획을 설명한 그룹, 이렇게 3그룹이다.

먼저 책의 대부분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사명을 가진 대학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7개 기능을 살펴본다. 이 7가지 기능은 미국고등교육운영시스템센터가 발행한 「프로그램 분류구조(Program Classification Structure: PCS)」에서 응용한 것이다. PCS는 고등교육을 계획하고 관리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기 위한 공용 언어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PCS의 범주를 다소 변경하였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관리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 교수, 직원, 기관 외부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다른 행위자의 활동을 반영하고 기록 활동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되고, 아키비스트에게 익숙한 범주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대학의 세 가지 사명을 7가지 기능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7가지 기능중에서도 경영관리활동과 관련된 ‘기관 존속’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기관의 공통요소인 운영, 재무, 인사, 물리적 시설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기관에서도 해당 기관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가능하다.

또한 기능을 나누고 각 기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이나 사안을 세분하여 서술하고, 그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유용한 방법이다.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생산,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기록 부족이나 상당 부분 기록화가 되지 않은 문제점, 더 나아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과정은 무조건적인 ‘관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 활동에 따라 기록을 생산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은 활동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공식적인 기록을 생산하지만, 정작 중요한 실제 수업이나 연구, 학습, 사회 활동 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해결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몫이다. 수집단계 이전에서부터 기록을 위한 아키비스트의 노력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기관을 연구하고 전체 기록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평가하라’는 금언을 기록물 조사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저자는 불평한다. 그러면서 저

자는 아키비스트의 제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좀 더 포괄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제안하는데, 즉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생산, 분석, 선별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단순히 소속 기관의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수집물의 장점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되는 책임과 현재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한다. 단순한 ‘기록 관리자’가 아닌 ‘기록연구자’여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히 공감되는 주장이다. 만약 아키비스트가 그들의 책임이 기관을 기록하는 점을 인식한다면 기록 생산 과정에 개입하거나 기록이 생산되도록 확보하는 것은 그들의 기록 활동 사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근거한 저자의 당연한 논리이다.

저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기록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키비스트가 대학 기록을 모두 수집, 보존해야 한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일부 기록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음을 인정한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기록관리의 문제를 얘기하지 ‘기록’ 자체를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자의 논리는 많은 정보를 보존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인 기록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수만 명이 등록하는 대학에서 세부적이며 방대하고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정보는 학생에 대한 것인데, 어쩌면 최종 성적표 이외의 다른 정보는 관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학교의 자금 모금 활동과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보다는 필요한 정보인 기본 전략, 직원, 활동, 발표가 담긴 기록물만 보관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다만 아카이브의 최우선 목적은 여러 기술적, 역사적, 법률적, 관리

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기록 관리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매우 현실적인 주장인 듯해서 공감이 간다. 모든 행위와 과정에 대한 기록화를 애써 주장하지 않는 듯해서 다소 부담이 덜해지는 기분이다. 물론 저자의 의도를 오해해선 안 된다. 저자는 최소가 아닌 최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7가지 기능에 따른 활동과 관련 대학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은 기록이나 기록되지 않는 기록이 너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은 어느 장소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기록될 수 있으나 그 선택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과정 안팎에서 실제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요소의 역할은 기록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기록은 보통 최종 결정과 과정의 일정 부분만을 포착하고, 추가적인 기록 활동이 없으면 그 결정의 많은 요소와 참여한 개인은 알려지지 않는 채로 남게 된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이다.

입학심의회와 같은 경우, 성격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관한 문서 기록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고, 심사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실제 입학할 학생들에 관한 심의회 심사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쉽게 기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수진의 학문 자유와 자율권에 대해 오래도록 지속된 사고방식

때문에 교실 내 수업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장려되지 않았던 배경이 존재하긴 한다. 물론 일부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저자는 아키비스트가 대학의 중심 업무 중 하나인 수업을 실제로 기록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사회화 활동 역시도 어떤 형식으로 잘 기록되지 않으며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기록이 존재할 뿐이다. 관련 단체도 일부는 어느 정도 기록을 관리하지만, 상당수는 꽤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며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들만의 상호작용(게시판 공지, 다양한 인쇄물 등)을 기록한 기록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 개개인의 일상적인 사회화 과정은 그것을 포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잃어버리기 쉬우며, 의식적으로 생산한 기록이 그나마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연구 분야의 경우도 비슷하다. 연구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것, 즉 연구 질문을 구상하고, 요구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며, 연구원에게 책임을 할당하고, 발견·분석·작업의 실질적인 순서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 활동 중 일부는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록되지는 않는 정신적인 과정인 것이다. 일부 연구기록은 여러 사무실과 실험실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원거리에 있는 연구자와의 협력은 기록의 분산, 중복 등 관리측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저자가 제시한 지나치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최종 출판물과 관리기록의 요약본 정도도 연구 수행의 충분한 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보다 완전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기록물도 요구되지만 모든 연구사업이 완전히 기록될 필요는 없으며

로, 기관에서 일어난 연구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즉 ‘최소한의 기록을 넘어 좀 더 충분한 기록’을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앞에서 얘기된 도큐멘테이션 수행의 어려움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잘 보여주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과 해결책을 접할수록, 연구보다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저자의 이력때문인지 현실 순응을 바탕으로 아주 조금만 나아지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다소 불편한 마음도 든다. 경험만큼 훌륭한 지식은 없다고 하는데, 저자의 충분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을 정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일부는 저자의 주장대로 행하기 쉽지 않다. “사회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 업무와 활동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선 ‘업무와 활동’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의 범위나 얼마나 깊고, 넓은 기록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더구나 저자는 구성원의 경험을 포착하기 위한 여러 의식적 노력의 일환으로 사진 작업과 구술기록을 제안한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구술 기록을 이용해서 문서 기록을 보완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 그 결정과정의 세부 사항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기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쉽지 않은 대안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인 ‘기관 도큐멘테이션 계획’은 특정한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록화 계획을 보여준다. 저자가 주장한 도큐멘테이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집물을 구하기 전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기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자료의 관

리와 평가, 미래에 요구되는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입, 부족한 부분의 보조적인 기록 활동과 관련된 목적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도큐멘테이션 계획의 목적은 기록과정을 계획된 활동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선별, 수집, 관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한 수집 전략이 아닌 기록의 생산단계에 대한 제어까지도 포괄하는 도큐멘테이션 계획은 특히 수집형 기록관에서 적절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도큐멘테이션 과정(기능 해석-기록화 목표 설계-기록화 계획 수립-각 기능을 기록화 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의 평가-기록화 목표 확인과 기록화 절차 수립)에 따라 기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화 계획을 수립해 간다면 아카이브가 해당 기관을 기록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는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올해로 16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내용이 풍부하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다. 지금의 중요한 화두인 전자기록과 관련한 내용은 부족하다. 하지만 저자는 시스템 자동화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과거에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컴퓨터가 업무 방식, 의사소통 방식, 기록물 생산, 보존 방식 등에 영향을 미쳤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자동화된 환경이 아키비스트에게 상당한 도전을 가져왔지만,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과 재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금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기록 보존에 있어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만 선택하거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고 아무 전제없이 주장하는 것은 전자기록 보존상의 여러 이슈에 대한 고민이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안내에 불과할 뿐 지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저자의 부탁이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책의 활용을 넘어 실제 해결 방안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도 모든 기관마다 기능이 동일하지도 않고, 모든 기록을 동일한 수준으로 기록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기관마다 고유하고 특수한 상황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얘기한 것이 아닐까? 결국 기관과 관련한 규제, 제도 등을 확인하고, 여러 환경적 변화의 포인트를 파악하여 기록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아키비스트가 챙겨야 하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아키비스트는 분석가이자 계획자이며 기록관련 문제를 인식시키는 활동가이다... 좀 더 완전한 기록은 의식적으로 기록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